

原子力創業의 證人들

對話로 엮는 우리 原子力史

朴 益 洙
(本 協 會 會 長)

尹世元 編 (2)

朴: 1958년에 原子力法이 國會를 통과하고 1959년 1월 21일에 初代 原子力院長으로 金法麟씨가 임명됐는데 科學분야와 전연 관계없는 專攻을 하신 이 분이 어떻게 이 原子力院 初代 院長 으로 발탁됐는지 지금도 궁금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尹: 글썽요, 자세한 내용은 나도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科學과는 직접 관계없는 哲學을 전공하셨읍니다만 프랑스에서 공부하셔서 프랑스 말을 매우 잘 하였고, 따라서 新知識도 매우 풍부하셨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初代 文敎部長을 지낸 다음 東國大學校 總長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 當時에 李大統領이 가장 신임했던 분의 한 사람이였고 當時 自由黨의 거물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李大統領이 그러한 거물을 原子力院長으로 임명한것은 그 당시의 우리나라 原子力事業을 그만큼 중요시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朴: 그러한 정치적인 거물이 돼서 초창기에 법령제정이나 예산 및 T/O등 실무적인 활동을 하기에

는 좋았겠읍니다.

尹: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하고 뒷받침 할 수있는 좋은 부하를 만나야지요.

朴: 그러면 그때 原子力院의 事務局長이 金大萬이었는데 이 분은 當時에 어떤 분이였읍니까?

尹: 그 때의 직함은 事務局長이 아니라 事務總長이였읍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調達廳의 局長으로 있었다는 것만 알고 그 외의 경력은 잘 모르겠읍니다.

朴:尹박사님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러한 물망에 오르지 않았읍니까?

尹: 아니지요. 그 때에는 모두들 내가 사무총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나는 行政보다 研究하는 쪽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희망했었지요.

朴: 研究所에 계시면서 事務總長과 같이 일할 때 金院長께서 사무총장을 잘 만난거라 생각했읍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 했읍니까?

尹: 분명히 그것은 잘못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하고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 당시 연구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朴: 한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尹: 이 자리에 없는 분에게 그 이상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朴: 알겠습니다. 그러면 廳舍 문제에 대하여 좀 묻겠습니다. 처음 原子力院의 廳舍는 1959년 1월 26일에 中央廳 앞에 있는 종합청사 자리의 체신부 저금관리국 廳舍안에 같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기 있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尹: 그때 나는 돈이 안드는 기존 政府廳舍나 政府 소유의 건물에 들어 가려고 했는데 사무국 쪽에서는 보증금을 주더라도 좋은 건물을 물색해서 임대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朴: 그래서 그런 반대 의견이 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尹: 몇차례 회의가 있었읍니다만 그때마다 나는 돈을 들여 청사를 얻는 것에는 한사코 반대했지요. 그 이유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을 임대하는데 쓰는 것보다 정부의 청사나 다른 곳에 공짜로 들어가서 남은 돈을 다른데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정부 소유의 적당한 건물만 찾으면 공짜로 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朴: 결국은 尹박사님 의견대로 된 것 같은데 처음 목표한 곳이 체신부 저금관리국 청사였습니까?

尹: 아닙니다. 처음에는 景福宮 안에 있는 지금의 學術院 건물이 거론됐읍니다. 그것이 당시에 文化財 管理局의 所管으로 美術館으로 사용했던가 그랬읍니다.

그래서 가 보았는데 외관은 석조건물이어서 근사하게 보였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 속이 텅 비었고 칸막이 해서 쓰기도 불편하게 보여서 그렇게 마음 내키지 않았고 한편 문화재관리국에서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곧 단념했지요.

朴: 中央廳이 가까워서 위치는 좋았던 것 같은데..

尹: 그렇읍니다. 그래서 中央廳에 가까운 곳에 적당한 건물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중앙청 앞에 있는 저금관리국 가청사를 原子力院에서 쓰겠다고 하면 가능 할 것이라 말해 주더군요.

가 보았더니 허술한 건물이기는 하지만 중앙청에 가까워서 좋았어요. 다른 분들도 별로 반대하지 않아 그곳을 교섭했던 거죠.

朴: 그때에는 체신부의 반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尹: 당시 우리의 原子力事業은 大統領이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閣僚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나라의 財産을 관리하고 있는 財務部도 될 수 있으면 적극 도와주려고 하는 태도였으니까 별로 반대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었읍니다.

朴: 그렇게 청사를 얻은 다음 사무 행정시 시작되면서 2~3개월이 지난 4월 15일에 原子力院에서 제 1차 전문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더군요. 이 자문위원회에 대해 좀 아십니까?

尹: 그 전문 자문위원회와 같은 기구는 文敎部 原子力課 당시에도 있었읍니다.

그 때 최첨단 과학을 다루는 행정을 내혼자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옳치 않다고 생각해서 당시에 「원자력자문위원회」라는 이름의 자문기구를 가졌읍니다. 그 때에 관계한 분들이 10여명 되는데 지금 기억나는 분들이 이태규, 정락은, 김옥준, 이종진, 강연선, 이민재, 심상철 등 입니다.

朴: 그러면 그 위원회가 자동으로 原子力院에 계승된 겁니까?

尹: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교부 시대의 것은 내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고 原子力院의 것은 정식으로 政府에서 위촉한 거죠.

朴: 그 때 原子力院의 위원회는 주로 어떤 자문을 했읍니까?

尹: 原子力研究所의 연구기구와 동일하게 기초연구 관계, 원자로연구 관계, RI이용연구 관계로 구분되어 주로 연구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 그 다음에 10월 6일 朴東吉, 李宗日, 金東一의 세분이 原子力委員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인사문제는 研究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인선되었는지 아시는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尹: 네, 朴哲在所長과는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李宗日위원의 경우는 이 분이 원자력사업에 대해 대학에 계신 분으로는 매우 관심이 많았고 또 열성적인 데다가 原子力은 전력문제와도 관계가 있어서 電氣專門인 그 분야를 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朴東吉위원의 경우는 우

라늄자원문제가 있어서 당시 地質學의 대가로 알려진 만큼 당연히 그분을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金東一위원의 경우는 이 분은 이미 서울大學校 工科大學學長으로 지내셨을 뿐 아니라 당시 50대 과학하신 분으로는 매우 활동적이고 식견도 넓어서 原子力政策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적격이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세 분을 모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原子力法上 院長과 소장은 당연직 原子力委員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섯분으로 原子力委員會가 구성되었지요.

朴: 그 때 原子力委員會와 研究所와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尹: 그렇게 좋은 편은 못 되었지요. 왜 그랬는고 하니 原子力委員들이 1개월에 한번씩인가 2개월에 한번씩 研究所에 와서 行政監査하듯이 研究監査를 했습니다. 研究施設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고 研究準備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자꾸 研究成果만 따지니 연구소와의 관계가 좋아질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당시의 原子力委員님들은 연구소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지요.

朴: 原子力研究所의 開所는 1959년 3월 1일에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4호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때 原子力研究所의 職制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尹: 研究關係組職은 基礎研究室, 爐工學研究室, RI 利用研究室로 구분되었고 行政職으로 庶務課와 建設課가 있었지요.

朴: 室長들의 職級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級數랄까 號俸 말씀입니다.

尹: 그 때 所長은 1급이고 號俸은 次官級이었읍니다. 常任原子力委員도 所長과 같은 대우였지요. 그리고 次官級 號俸은 아니지만 研究職으로서 1급 T/O를 세계를 갖고 있었읍니다.

朴: 제 기억으로는 그 때 당시에 우리 정부에 연구 소장 급수로 1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더욱 研究職이 1급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 생각하는데...

尹: 그렇읍니다. 商工部 산하 中央工業試驗所가 그 당시에는 제일 큰 研究기관이었는데 그 所長이 2급이었읍니까요. 그러나 所長 T/O를 1급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일반연구 직 T/O를 1급으로 얻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웠

고 그것도 세계를 얻었으니까요.

朴: 그 어려움은 가히 짐작이 갑니다만 그걸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尹: 法制處 法務官은 나의 전직이 大學教授라는 것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잘 밀어 주려해서 法制處관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總務處에서는 그런 前例가 없다고 처음부터 반대해요. 그 때 이 관계의 局長과 言爭을 많이 했어요. 내 주장은 「현재 서울대학교 이태규박사님같은 분을 모시려면 2급 T/O를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원자력연구는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지, 현재 중앙공업시험소같은 T/O로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해 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소는 파격적으로 생각해야지 지금까지의 선례를 비교해 생각하면 안된다」고 했지요. 그때 내 고집도 대단했던 모양이지요? 충무처도 점차 주장을 굽히고 결국은 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때 그대로 물러갔으면 그 다음 급수를 얻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朴: 그렇읍니다. 한번 좋지 않은 先例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 고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T/O는 原子力院이 발족하기 이전에 얻어 놓은 겁니까?

尹: 그렇지요. 原子力院이 발족하기 전에 職制, T/O, 豫算도 확보해야 했고 이러한 작업들은 모두 문교부 원자력과 과장시대에 해야 했던 일이지요. 그래서 原子力院이 발족하면 사용할 豫算도 58년도에 이미 확보했지요.

朴: 그러면 예산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59년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읍니까?

尹: 14억원입니다. 당시의 중앙공업시험소의 총예산이 2000만원정도 었으니까요. 많이 얻은 편이지요.

朴: 그 속에 研究所建物도 짓고 原子爐購入도 하는 예산이 들어 있는 겁니까?

尹: 아닙니다. 原子爐 購入예산은 57년분 예산에 이미 3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읍니다.

朴: 그 3억원이 모두 原子爐購入자금이었읍니까?

尹: 아니지요. 原子爐 구입자금은 美國 政府에서 이미 35만弗을 받았고 그 원자로를 건설할 건설 자중에 (대지, 건물등 예산) 대한 원화부담이 1억 7,500만원이 었읍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2,500

만원은 58년도 예산이지요.

朴: 그런데 내가 原子力委員으로 들어간것이 1963년도 4월인데 그 때의 예산내용을 보니까 研究보조금이라는 것이 있고 研究官에게는 研究手當, 危險手當 등이 있었어요. 이것이 처음 예산부터 책정되었다고 들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예산항목에 이러한 이름의 예산이 이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하였는데...

尹: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산항목은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재무부 예산과장파 많이 언쟁했습니다. 현재 예산항목 없는 것을 새로 설정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朴: 연구보조금은 연구소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 예산이 꼭 필요했습니까?

尹: 대학에 있을 때 연구비가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것이 늘 한이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보조금제도는 이 때에 전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던거죠.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꼭 실현시키겠다는 것이 그때의 나의 결심이었습니다.

朴: 그 연구보조금은 어떤 연구에 대해 목표했습니까?

尹: 그 때는 학술연구와 정책연구의 두 분야로 구분했습니다. 당시 연구소 T/O를 가지고는 그 넓은 원자력연구를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 있어서의 원자력연구를 조성하여 연구소와 대학과의 긴밀한 협조관계에서 우리나라 원자력연구 사업을 발전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원자력정책문제도 원자력원에서만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연구시켜 그러한 협력에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던거죠.

朴: 그 당시에는 대학교수들에 대해 지급하는 그러한 연구 예산이 문교부에 전연 없었습니까?

尹: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책정되었던 연구보조금이 약 1억원이었는데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1957년 7월부터 原子力院 주최로 매년 原子力學術會議를 개최 할 수 있었으며 제 1차때 발표된 論文이 40여편이었고, 이것으로 원자력분야 연구에 아주 큰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朴: 그 연구보조금은 당시 대학교수들에게는 아주

인기있었고 여러가지 면에서 큰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전체 학계와 학생들의 원자력연구에 대한 관심을 크게 자극하고 촉진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1963년도에 들어가 보니 연구관에게 급료외에 연구수당이니 위험수당을 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수당제도도 당시 있었습니까? 이것도 새로운 예산항목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尹: 그렇습니다. 연구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러한 先例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의 관료들의 급료가 대학교수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따라서 연구할만한 사람들이 대학으로 가려하자 연구관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朴: 어느 정도의 차가 있었습니까?

尹: 57년도에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副教授로 그만두었습니다만, 그때의 월급이 8만원정도 였는데 원자력과장으로 부임하니까 2만 5천원을 줍니다. 3분의 1도 못돼요.

朴: 서울대학교 副教授가 行政府의 과장에 해당됩니까?

尹: 원래는 局長과 課長의 중간정도 될겁니다.

朴: 그렇고보면 尹博士님은 봉급도 지위도 크게 손해 본 셈이군요.

尹: 그 때에는 국가적으로 큰 관심이 있는 일을 책임지고 일한다는 보람이 있었고, 또 가정생활을 위하여 꼭 봉급이 많다·적다 하는 것을 따져야 할 그러한 사정이 아니어서 그렇게 손해 본다는 것을 따지지도 불평도 하지 않았읍니다.

朴: 그러니까 연구수당이니 위험수당이라는 것은 대학교수의 봉급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거군요.

尹: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T/O도 그렇고 그것을 실현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최초로 많은 좋은 분들이 연구소에 모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朴: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얼마나 어려웠던 일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해외의 원자력 유학생 혹은 原子力 訓練生에 관한것도 보면 1959년도 原子力院이 발족할 당시에 이미 약 150명이 國費로 나갔더군요. 이러한 豫算도 처음 만든 예산항목이 아닙니까?

尹: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선 사람을 기르고 그러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야 원

자력 연구가 되는 것이니까 海外에 教育訓練을 위해 보내는 豫算을 책정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때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외국에 나가 공부할 기회를 주려고 했지요.

朴 : 내가 63년도에 原子力院에 들어가 보니 1년간 教育訓練 목적으로 派遣된 사람들이 延長 승인을 얻어 가지고 博士課程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렇게 工夫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연구소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는 어떠한 엄한 義務(Obligation)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尹 : 제가 있을 때는 외국에 나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을 붙이질 않았읍니다. 그 때의 내 생각은 훈련목적으로 나간 사람도 공부할 찬스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허용할 방침이었읍니다.

朴 : 그 때에 그러한 방침이 문제되지는 않았읍니까
尹 : 훈련의 연장으로 구실을 붙였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었지요. 그렇게 허가해서 學位까지 하고 온 사람이 많습니다. 양재현씨가 4개월간의 RI 훈련생으로 오크릿지연구소에 갔는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애틀에서 原子爐구매를 위해 내가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체류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나에게 電話를 걸었어요. 歸國여비를 가지고 퍼듀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으니 허락해 달라는 소원이었어요. 그때 두말하지 않고 승낙했읍니다.

그외에 임용규, 문석현도 이러한 케이스라 기억합니다. 물론 그외에도 많지만...
朴 : 지금 생각하면 잘 하신거라 봅니다.
尹 : 그 보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양성을 위해 반드시 국내에서 선발하여 외국에 보낼 필요없이 이미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여 留學補助金を 주려고 했읍니다. 그 때 年 1,800불 支給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우선 大統領의 양해를 얻으려고 이 계획을 靑瓦臺에 올렸읍니다. 그랬더니 「돈을 도와주지 않아도 공부할 사람인데 무엇때문에 자진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었읍니다.

朴 : 그래서 결국 안됐읍니까?
尹 : 아니지요. 그 때 청와대 비서관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읍니다만 몇 번 찾아가서 「그렇게 사람을 구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속히 원자력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다」고 계속 때를 썼지요. 그 비서관이 하루는 나

를 부르더니 「나는 설명이 잘 안되니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비서관에게 설명한 일이 있는데 아마 이 계획은 두 번 부결됐고 3회째 겨우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朴 :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尹 : 현재 확실히 기억나는 사람이 김 태봉, 이 상수, 이 동년, 정 한용 등 입니다.

朴 : 그것도 아주 기발한 생각인 것 같군요. 어쨌든 그렇게 너그럽게 유학생 훈련생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첨단기술 능력의 커다란 母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1년도 5·16혁명 후에는 훈련갔다 공부한다고 그 곳에 주저 앉는 것도 엄격히 규제되었고 국비로 외국에 가면 반드시 돌아와서 몇 년간 근무해야 하는 의무도 주어지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배상하도록 규정하기도 했읍니다. 이것은 당시에 원자로도 가동한 때여서 연구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때에는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尹 : 그렇지요. 언제까지나 자유로히 하도록 방임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朴 : 그래서 5·16혁명 후에는 國費로 海外訓練이나 留學을 갈 때에는 義務條項과 派遣目的을 엄격히 지키도록 규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많은 留學生을 만든 것이 그 후에 KIST를 만들고 企業研究所를 만들고 그리고 經濟開發 5年計劃을 추진하는 모든 科學技術人力의 절대적인 基礎가 되고 뿌리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 때에 어떤 판단이 좋았던가 하는 것은 앞으로 歷史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原子力研究所의 敷地選定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지요.

尹 : 敷地選定 문제에 대해서 말하라면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가 과장으로 취임한 다음 몇 달 후에 李大統領을 만났는데 그 때에 내게 한 말씀도 있고해서 어디 은밀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처음 하는 일이라 어디 방향이 잡혀야죠. 그래서 당시 國防科學研究所所長인 鄭樂殷을 찾아가 뵙고 相議했읍니다. 그 때에는 敷地문제 뿐만 아니라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鄭所長을 찾아가 뵙고 많이 의논했읍니다.

朴: 그러니까 敷地選定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尹: 문교부 원자력과시대부터니까 1957년 4월경부터라 기억합니다.

이 때 官用 揀車를 가졌었는데 당시 政府의 課長級이 모두 70명 정도 있는 가운데 과장급으로 전용揀車를 가진 사람은 財務部 豫算局 豫算課長인 이한빈과 나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때에 敷地 찾기 위해서는 車가 절대로 필요했으며 鄭所長이 여기 가 봐라 저기 가 봐라 하면 열심히 찾아 다녔지요. 아마 서울 근교는 거의 안가서 본 곳이 없이 다녔는데 그 해 6월 경에 安養에서 약 16km지점에 있는 박달리라는 곳을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 넓은 平地가 있는 주위에 野山이 둘러싸여 있고 入口도 좁아서 外部에서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朴哲在局長이 「研究所敷地는 外部出入이 어렵고 外部에서 잘 보이지 않고 保安이 잘 되는 곳이 좋다」고 하던 말씀과 비슷한 곳이라 생각되어 이런 정도면 괜찮다고 곧 마음에 끌려요. 후에 朴局長도 文敎部長官도 보시고 「좋다」고 하시기에 처음에는 그 곳을 정하고 五部長官會議의 合議도 보았지요.

朴: 그 五部長官會議라는 것이 어떤 性格의 會議입니까?

尹: 네. 이것은 原子力事業에 관한 豫算執行이라던지(미국의 원자로 구입 원조자금 35만\$ 포함) 原子力事業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外務長官(조종환), 國防長官(김 일환), 財務長官(김 현철), 復興長官(송 인상), 그리고 文敎長官(최 규남)의 協議를 거쳐 집행하라는 李大統領의 特命이었습니다. 그 理由는 ① 국가적 사업임 ② 특히 五部長官에게 중요사업임을 인식하게 함 ③ 신중하게 함 등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豫算과 事業의 責任 그리고 權限은 어디까지나 文敎部에 있으면서 原子力事業에 관한 行政만은 당시에 이렇게 복잡하고 변태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民家は 없었습니까?

尹: 民家は 그 곳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어요. 원래 그 곳은 日本군인들이 彈藥貯藏庫로 썼던 자리라고 하는데 進入道路도 이미 돼 있었어요. 그래

서인지 풀은 무성했지만 지면은 비교적 평평하고 보는 사람마다 괜찮다고 했어요.

朴: 그렇게 좋은 곳이었는데 어떻게 工科大學였으로 변경됐습니까?

尹: 工科大學였으로 정하기전에 아직도 이야기 있습니다.

朴: 그래요! 그러면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尹: 安養 근처에 있는 그 곳을 정한 다음에, 1968년 4월에 AZC極東科學擔當官(日本駐在)인 W.H페닝톤이 서울에 왔는데 敷地를 선정해 놓았다고 하니까 同行한 미시간대학의 G.H윌폴교수와 함께 그 곳을 보았으면 해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그 곳을 구경시켰는데 첫마디가 「왜 이런 오지에다 정하느냐. 大學近處에 사람들이 往來하기 便한 곳에 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면서 별로 마땅하지 않다는 표정으로 이야기 해요.

朴: 그 때의 安養도 그렇지만 그 곳에서 또 16km 더 떨어진 곳이니까 서울에서 볼 때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것 같은데.....

尹: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해없도록 그렇지 않다는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지금 생각할 때 이 곳이 交通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發展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0년 쯤 지나면 이 곳도 서울에서 30~40分 거리될 것이고 따라서 곧 都市圈으로 편입될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하고 있다. 日本 東海村도 처음에는 都市와 먼 거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별로 불편없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해서 敷地選定을 굳혀 놓고 그 해 8월에 原子爐購買團長으로 미국에 가게 됐는데 돌아와서 그 곳에 다시 가서 보았더니 鉄條網을 쳐 놓고 누구도 못들어 가게 美軍 鐵말이 붙어 있어요. 닭 쫓다가 하늘 쳐다보는 격이 된거죠.

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尹: 곧 朴局長과 文敎部長官에게 이 事實을 報告했지요. 그랬더니 文敎部長官이 五部長官會議를 召集해서 이 문제를 다시 협의했습니다. 이때 제일 입장이 곤란했던 長官은 國防長官이었습니다. 그래서 國防長官이 辭職해서 내놓은 意見이

「美8軍에서 사용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므로 그만한 敷地를 제가 責任지고 찾아드리겠습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추천한 곳이 바로 지금의 성남市쪽의 남성대골프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곳은 옛날 陸軍刑務所 자리였다고 하는데 中央廳에서 약 20km 떨어져 있고 垓地는 150만 평 정도 되어 아주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地面이 진흙으로 덮혀 있어서 地盤이 아주 무게 보였고 上·下水道, 道路, 電力施設 등을 다시 새로 하려고 하니 아주 난감했어요. 물론 安養의 경우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 때에는 어쩐지 예산 걱정을 하게 되고 예산을 덜 투입하고 부지로 사용할만한 곳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군요.

朴: 그래서 찾은 곳이 工科大學 옆 그 場所군요.

尹: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方向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工科大學 尹東錫教授가 좋은 곳 하나 있다고 인포메이션을 주더군요.

즉, 서울대학공과대학 옆에 있는 땅인데 현재 陸軍工兵隊에서 부루도저練習場으로 산을 막 깔고 있으니 그 곳을 한번 가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大學校 李鍾珍교수와 함께 쥘차타고 가서 보았더니 마음이 들어요. 옆에 工科大學도 있고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좋게 생각됐어요. 그러나 다만 漢江以北에 位置해서 安全과 安保면이 좀 염

려됐습니다.

朴: 그래서 어떻게 判斷했습니까?

尹: 이 문제는 나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聯合參謀本部에다가 質疑書를 냈습니다. 즉 성남市쪽의 남성대位置와 工科大學 옆 孔陵洞位置는 以北에서의 攻擊에 어느 쪽이 安全한가 하는 것을 質疑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別로 時間差가 없고 대체로 같다는 對答이었습니다. 그래서 文教部長官을 위시해서 次官, 局長 등과 相議했더니 尹課長이 잘 判斷해서 定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地籍圖를 퍼 놓고 조사해 보았더니 서울大學校 工科大學의 所有地가 부루도저練習場으로 깊숙히 들어와 있어서 당시 서울大學校 尹日善總長을 찾아뵙고 研究所敷地計劃을 說明하면서 서울大學校 所有持分 13만坪을 달라고 떼를 썼지요. 그래야 研究所敷地로서의 規模로도 손색이 없고 工科大學과의 관계도 더 隣接하게 될 수 있어서 尹總長은 물론 工科大學長을 열심히 설득해서 同意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이 바로 그 研究所敷地 입니다.

朴: 研究所敷地選定' 문제가 그렇게 복잡한 스토리가 얹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原子爐購買문제와 原子爐建立문제 등을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